



바다는 내 삶의 바탕이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그 섬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보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이 2005년 무렵이었다.

17년이 지난 2022년에 시작해 2023년과 2025년에 연이어

신안 바다와 섬에 대한 작업을 선보였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강홍구



바다는 내 삶의 바탕이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그 섬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보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이 2005년 무렵이었다.

17년이 지난 2022년에 시작해 2023년과 2025년에 연이어

신안 바다와 섬에 대한 작업을 선보였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강홍구



2023년에 제작된 로봇 GF3의 머리에 쓰인
오픈소스 디자인의 마스크로
MMCA 올해의작가상2023 기간동안 관객에게 보여졌으며
6개월 가까이 전시동안 로봇오작동과 기계결함으로
수많은 긁힘과 파손의 흔적이 주름처럼 남은 기록물로
이후 작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전국선사박물관등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권병준



2023년에 제작된 로봇 GF3의 머리에 쓰인
오픈소스 디자인의 마스크로
MMCA 올해의작가상2023 기간동안 관객에게 보여졌으며
6개월 가까이 전시동안 로봇오작동과 기계결함으로
수많은 긁힘과 파손의 흔적이 주름처럼 남은 기록물로
이후 작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전곡선사박물관등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권병준



도깨비불. 기름전. 늦을 바깥. 김학량.

아무리 째째해도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는 기어이 꼭물거린다.
 어둠에 휩싸여 있으니 실은 움직거리기가 훨씬 편하다.
 어둠에 파묻혀 움직이기-도깨비불.
 실은 내가 그 도깨비불이라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학량



아무리 깜깜해도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는 기어이 꼭물거린다.
 어둠에 휩싸여 있으니 실은 움직거리기가 훨씬 편하다.
 어둠에 파묻혀 움직이기-도깨비불.
 실은 내가 그 도깨비불이라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학량



아무리 깜깜해도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는 기어이 꼭물거린다.
어둠에 휩싸여 있으니 실은 움직거리기가 훨씬 편하다.
어둠에 파묻혀 움직이기-도깨비불.
실은 내가 그 도깨비불이라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학량



그녀의 작품에는 희망, 기대,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근원적인 감각이 섬세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상상과 현실, 가상과 물리적 세계,
미지의 것과 익숙한 것과 같은 양분된 경계 사이에 머물며 사유하게 됩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혜리



그녀의 작품에는 희망, 기대,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근원적인 감각이 섬세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상상과 현실, 가상과 물리적 세계,
미지의 것과 익숙한 것과 같은 양분된 경계 사이에 머물며 사유하게 됩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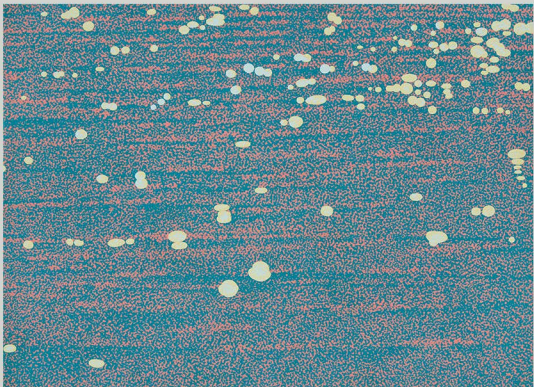
그녀의 작품에는 희망, 기대,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근원적인 감각이 섬세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상상과 현실, 가상과 물리적 세계,
미지의 것과 익숙한 것과 같은 양분된 경계 사이에 머물며 사유하게 됩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김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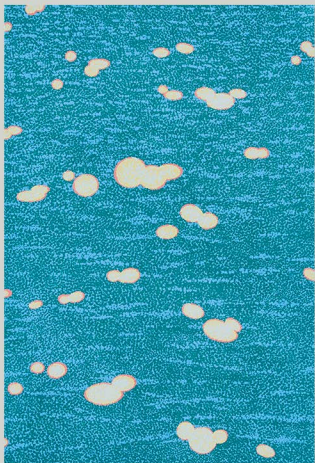


점은 저에게 가장 작은 시선의 단위이자 기록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옆에 또 하나를 더해가며
오늘의 충분함과 안전함을 쌓아갑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소양하는 사람' 시리즈는
매일 마주하는 소양강의 수면에서 출발했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머무는 윤슬을 따라가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소중한 감각을 화면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라켓키



점은

저에게 가장 작은

시선의 단위이자

기록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옆에 또 하나를 더해가며 오늘의 충분함과 안전함을 쌓아갑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소양하는 사람' 시리즈는

매일 마주하는 소양강의 수면에서 출발했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머무는 윤슬을 따라가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소중한 감각을 화면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라켓키



해당 물건 (one of them)은 제가 미술대학 대학원 당시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를 때 만들었던, 습작과 같은 물건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제작할 때 늘 사용해왔던 줄자를 여러 무작위하고 다양한
 길이로 뽑아내 그것들을 기념한다는 불필요한 상상을 어느 순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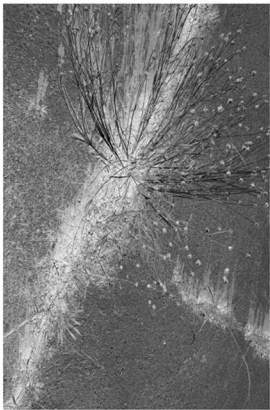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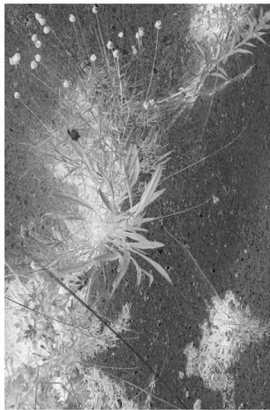
...

무언가를 잘 때 사용되지만 대체로 그것 자체가 무언가는 아닌
 줄자를 위해 필요 없는 보관상태를 만들어 떠올랐던 모진 말을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류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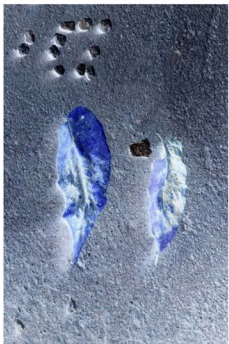


40년간 살던 서울을 떠나 몇 년 전 허물어지고 텅버가는 홍성 외곽으로 이사했다. 거의 날마다 내가 사는 곳의 횡한 골목들, 길들, 언덕과 숲길을 산책했다. 그곳에 서식하는 풀들, 새들, 벌레들, 돌들, 짐들, 인간이 버리고 간 흔적들... 무수한 인간 아닌 자들과 말 없는, 말을 잃어버린 대화를 나누며 내 피부에 어떤 느낌이 닿아왔다. 그 느낌은 흙씨처럼 내 몸에 붙어서 자라기 시작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박영선



40년간 살던 서울을 떠나 몇 년 전 허물어지고 텅버가는 홍성 외곽으로 이사했다. 거의 날마다 내가 사는 곳의 행한 골목들, 길들, 언덕과 숲길을 산책했다. 그곳에 서식하는 풀들, 새들, 벌레들, 돌들, 짐들, 인간이 버리고 간 흔적들... 무수한 인간 아닌 자들과 말 없는, 말을 잃어버린 대화를 나누며 내 피부에 어떤 느낌이 닿아왔다. 그 느낌은 흠뻑처럼 내 몸에 붙어서 자라기 시작했다.

흠뻑이며 웅얼대며 노래하듯 움직이는 이 느낌을 명료한 문장이나 하이퍼리얼한 고퀄리티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다. 내게 찾아든 광막한, 한 소절 쓸쓸한 노랫가락 같기도 하고 끝나지 않는 낮고 희미한 소리 비슷한, 아름답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이 미지의 생생한 느낌 'X'를 따라가고 싶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박영선



2005년 전후부터 2025년 까지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아크릴화 수채화 유화 등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실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의 일부로 공개 시범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1시간 30분 시범 영상의 결과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따라 그리셨고 그 그림들의 모티브로 남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곤



2022년 센다에고에서 2년정도의 작업 중 그린 작품으로 타지에서
이주—낯섦—정체성들의 고민과 '피상적으로' 들어나는 이미지와 내면적 실체의
불안함과 과시를 그림으로 표현 하려 하였습니다. 원제목은 '남자라는 제목을
갖고 그림을 그렸지만 그 후 '센다에고에서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자화상을 가끔 그립니다. 이전의 자화상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었고 그 그림은 2022년 뉴욕 포커스 아트페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군



2005년 전후부터 2025년 까지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아크릴화 수채화 유화 등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실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의 일부로 공개 시범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1시간 30분 시범 영상의 결과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따라 그리셨고 그 그림들의 모티브로 남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곤



껍질(Skin)의 연작 중 하나로 종이에 연필을 문질러 칠한 뒤 오려서 만들었다.
Colt 45는 1911년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사용을 하였다. 이외에도 권총 시리즈들을 몇 개 더 작업을 하였지만 현재
작가에게 남아 있는 작품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군



이 작품은 깨끗한 흰색 배경 위에 작은 한 개의 화분을 크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 때 기억으로 그 화 분이 저에게 커 보였습니다. 식물의 잎사귀는 섬세한 명암과 부드러운 붓질로 표현되어 마치 실체처럼 그리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녹색 플라스틱 군인 장난감이 총을 겨누는 채 놓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식물의 이미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도록. 이 인공적인 장난감 병사는 현실과 비현실,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군



동해의 묵호역 새벽에 해가 뜨면 기차 창문 밖 동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난 후 사진을 확인해 보니 사진에 물방울들이 있더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건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물방울이었을까요? 차창 유리였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저는 보았을까요? 지나쳐 갔을까요? 이 질문은 2002년 파리에서 6개월간의 채류 중 창밖을 바라보던 나에게 던진 질문으로 서해군의 창문 작품 시리즈의 모티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 다시 내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네요. - 2022년 비 오는 날의 시작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서해군



나의 음식 조각은 예술적 애도를 위한 환대의 만찬이다. 일상에서 상실과 고통을 마주하지만 억압된 애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멜랑콜리커들은 만찬의 식탁에 초대된 손님이거나 멜랑콜리커인 나를 환대하는 집주인이 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송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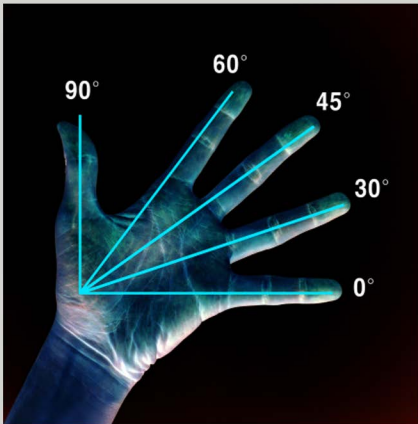


Happy Unbirthday TO YOU 는 작가가 오랜 시간 작업의 대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문구로 여러 작품안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생일이 아니여도 초를 켜고 불며 일상을 축하하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축하받지 못한 일도 축하하며 축하놀이를 하는 인간으로 상실을 애도하는 힘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고자 하는 문구입니다. 작가가 직접 구한 빈티지 자켓에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 방식으로 문구를 올려 완성되었습니다. 소장하시는 분의 매일이 축하로 가득하길 바라며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송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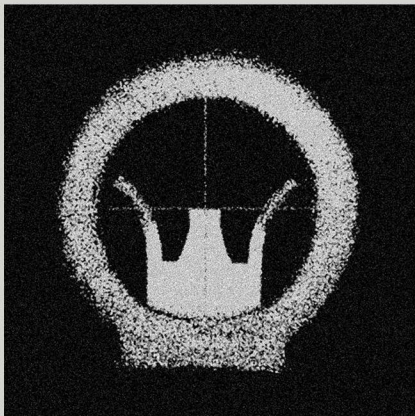


우리는 합리적 판단과 검증된 지식을 신뢰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것은 과연 유효할까. 여기서 제시되는
 방법들은 사격술이나 독도법처럼 훈련을 통해 숙달되는 기술인 동시에 많은
 부분이 감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미신이나
 관습, 직관 등 합리성의 세계에서 밀려난 요소들을 검토한다. 그러한
 미봉책은 비이성적이고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절박한 개인에게 믿음직한
 대안으로 다가온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신정균



신정균(1986)은 일상적 풍경이 특징한 기호로 치환되는 순간을 포착해 그 안에 존재하는 불안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발견된 오브제로 이루어진 아카이브와 모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서사를 만들어 낸다. 이는 사회에 만연한 보편적 관념을 재검토하고 그것이 형성된 경로를 역추적함으로써 개인이 집단과 맺게 되는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신정균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1978

Painting Installation

Chenard 78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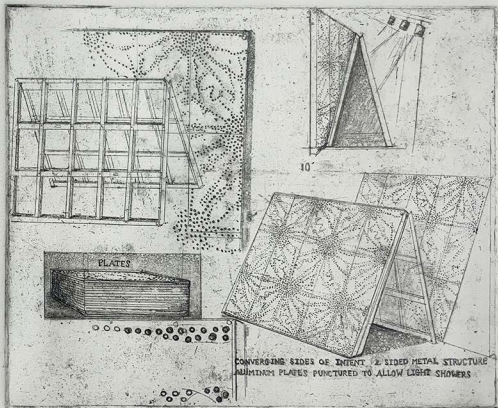
MACKEY 97'

오인환

소장품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16/20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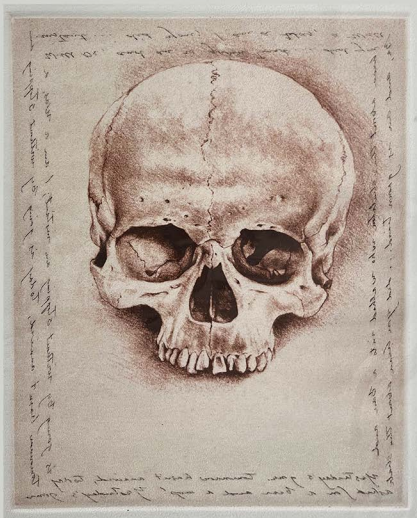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오인환

소장품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16/20



B (2y) 12. 1997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오인환

소장품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16/90

Lee Seobul '97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1920

Ben Sand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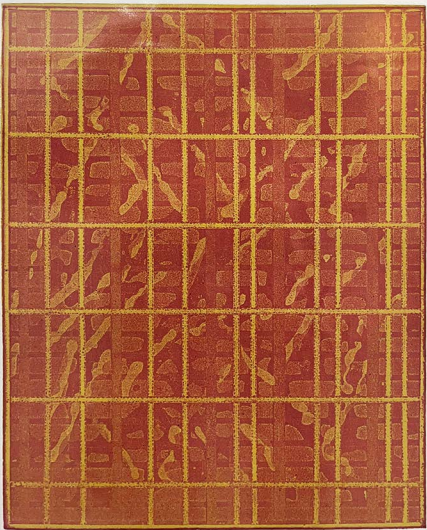
II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오인환

소장품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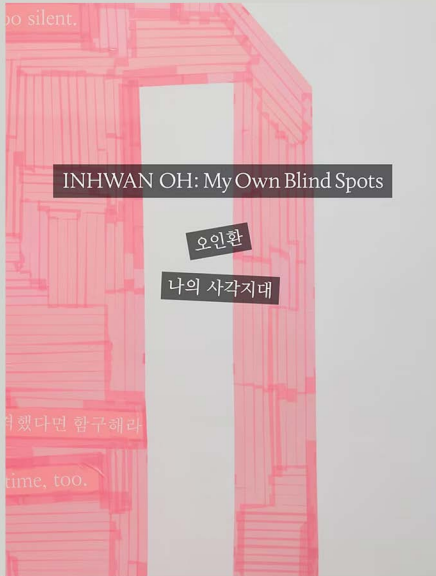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소장품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오인환



모양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거리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책 **바다찾기**는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바다의 다양한 모양 조각들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우리 삶의 모양들 또한 고정되지 않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왕경민



weight

PESB

वृत्तान्त

Gewicht

น้ำดื่ม

HEALTHCARE

poids:

collected in

1000

10

Wiley

Introduction

pair

4. Lowly clarity

主 要 成 分

Figure 1

100

000000

944

Wissenschaftszentrum für Sozialforschung

외모가 매력자본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이 외모를 가꾸지 않는 일은 쉽게 '게으름' 또는 '나태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몸무게는 때로는 강박의 대상이 된다. 무게는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양한 행성들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무게를 상상하고 계산해봄으로써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이른바, 부제는 '몸무게 상대성이론'이다.

지구를 벗어난 목성, 토성 화성, 금성에서 내 몸무게는 어떻게 변화할까?

요기전

왕경민

고양이 수염의 비밀
The Secret of Cat's Whiskers

Kgungrmin Lee

여기 한가지 상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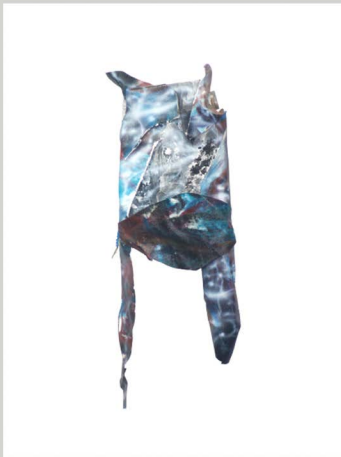
고양이의 수염이 무한히 길어진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수염이 끊임없이 길어지는 고양이들이 잔뜩 담긴 이 책을 보자!

우리는 고양이의 무수한 수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왕경민



이성훈은 개인적 기억과 타인의 기억을 회화를 통해 재조합하는 작업을 한다. 실제 기억 속 인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합일된 기억은 유지하고 차이나 오류는 변형하여 화면에 담는다.

작품에는 겹겹이 쌓인 선과 캔버스 파편들이 결합되며 설치할 때마다 새로운 기억의 층이 형성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성훈



이성훈은 개인적 기억과 타인의 기억을 회화를 통해 재조합하는 작업을 한다. 실제 기억 속 인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합일된 기억은 유지하고 차이나 오류는 변형하여 화면에 담는다.

작품에는 겹겹이 쌓인 선과 캔버스 파편들이 결합되며 설치할 때마다 새로운 기억의 층이 형성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성훈



필름 루프머신이나 빔프로젝션처럼 움직이는 장치가 사운드·리듬·광학적
떨림을 만들어내는 반면, 이 평면 작업에서는 '정지된 루프'라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필름은 더 이상 영사되지 않지만, 말린 필름 내부에는 여전히 프레임의 흐름과
잠재된 운동성이 내재하며, 관람자는 기계장치의 내부를 단면적으로 응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영호



019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탐독하고 있었다. 책을 읽으며 이 책의 각기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들을 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가서 구했다. 책의 내용 중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자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다. 이 문구와 같이 번역본들은 내용은 같지만 어디에서 번역되었느냐에 따라 이들의 모습은 상이하다. 이 문구에서 착안하여 책의 크기와 비슷한 1호 크기의 캔버스 나무틀들을 만들고 그 옆면에 책의 제목들을 실코스크린으로 프린트했다. 각각의 캔버스 틀들이 각기 다른 구매자들에게 판매된다면 그 틀들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담지하는 이미지는 상이할 것이다. 구매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이 보이지 않는 차이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과정이 이 작품이 담고자 하는 이미지이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윤수



시간은 인간 사회를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공리(특정 체계 내에서 증명이 필요없는 자명한 명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리가 과연 정말 자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작업이다. ... 그리니치 천문대와 시간으로 상징되는 공리는 자명한 사실이기보다 국가와 사회, 자본을 초월하여 전 인간 사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권력 장치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윤수



두개의 무덤과 두그루의 나무.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인협



군부대의 벽.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인협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거대담론 밖, 이슈화 되지 않는 어느 지점 즈음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한다.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외적 작용으로 인해 정신을 차려보니 꽤나 밀려나와 있었다. 그렇게 처한 상황이 그래도 펍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이 나라의 이곳저곳을 이방인으로서 걸으며 사진을 통해 사회 주변부들의 시간과 공기를 기록하며 살아자는 목표도 세워본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인협



수도권 신도시 개발 이후 그 외곽에 자리 잡은 파편적인 공간들을 기록하는 사진작업이다. 경기도 서북부, 특히 고양, 김포, 파주 일대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지 않은 채 밀려난 풍경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 확장의 그림자 속에서 비계획적으로 남겨진 주거, 산업, 농업 공간들이 본 작업의 주요 관찰 대상이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인협



All eyes on me / 44 x 34 x 5cm /

Archival pigment print, Aluminum casting, Museum glass, Aluminum 2024

최근의 작업들은 제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조형입니다 목적과 주변의 디테일이 서로 섞여 범람하는 느낌,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점점 흐려지는 상태. 그러다 결국 어떤 강렬한 조각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경험. 그런 감각들이 이번 작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선을 붙잡기 위한 이전의 장치들 금속 외피, 초정상자극의 과잉, 작동하는 구조물 이 모두 실패에서 배운 방법이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그 장치들이 서로 얹히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정곤



This is my everything / 31 x 41 x 6cm / Archival pigment print, Aluminum casting, Aluminum, Museum glass 2024

사진은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불, 지느러미, 갈비뼈 같은 금속의 구조와 결합해 다른 개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금속을 따라 변하고, 금속이 사진을 따라 움직입니다. 둘은 주·부의 관계를 잃고, 서로에게 기대고 흡수되며 새로운 몸을 형성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의태'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은 제 삶의 상태; 홍수, 사건들, 불안, 과잉, 생존하려는 본능들이 섞여버린 그 시기가 형태로 응축된 결과입니다. 화려한 외피 뒤에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의 잔해조각이 박혀 있고, 그 너머에는 조용하게 오래 보아야 보이는 이미지가 자리합니다.

이번 두 작업은 결국, 사진이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외피를 입고, 역자는 그 변화를 돕기 위해 몸을 만들어내며, 둘이 함께 완전히 다른 개체로 태어나는 순간을 기록한 작업입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이정곤



〈없어지는 말〉시리즈 중 하나로, 오디오가 포함된 2채널 영상이다.
 비둘기들이 뺑뺑이로 쓰인 'LIVE'를 평화롭게 먹어치우는 동안, 햇빛 아래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의 욕설과 다툼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모래사장에 흔히 써보는 forever라는 단어는 파도에 씻겨 사라진다.
 두 영상은 서로 마주보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반복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임은빈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을 각본으로 하여 영화 설치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만든 드로잉 작품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주인공 K.는 지체가기만 할 뿐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날 연극배우? 광대? 같은 두 명의 남자가 와서 K.를 데리고 어디론가 간다. 이 장은 '종말이란 제목으로 카프카가 써 놓았다. "소송"은 미완성 작품이라 이것이 진짜 소설의 종말인지 중간에 꿈을 꾸 장면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가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드로잉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며 약간의 암시만 주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정정화



타이프라이터로 글자 '수평선'의 철자(수, 평, 선)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복사기를 통해 크기를 다양하게 바꾼다.
그 위에 다시 철자들을 치고 또 복사하는,
여러 번의 반복 행위를 하여 수 없는 소림자로 된 추상적인 이미지,
단어와 이미지의 위상이 만나는 지점을 추구한다.
일종의 텍스트 이미지 작업.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정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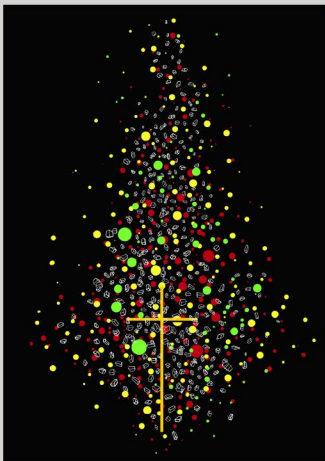
필름을 버리지 말자(Don't throw film away)는

국제영상자료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FIAF))가 2008년 채택한 슬로건에서 가져왔습니다. 촬영 이후 후반 작업 과정과 상영 과정을 거치면서 필름은 필연적으로 원본 네거티브 외에 수많은 복제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제물이나 손상된 상영 프린트는 단순히 열악하거나 훼손된 사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필름이 거처온 배급과 사용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과 역사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따라서 모든 복제물과 손상은 필름의 물질적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유산이며,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닙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조혜정



축 성탄 Merry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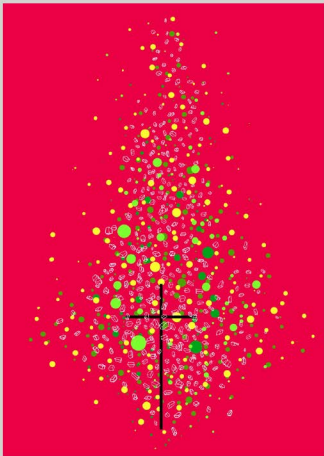
성경구절 누가복음 2장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라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채진숙



축 성탄 Merry Christmas

성경구절 누가복음 2장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라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채진숙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다.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잘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간의 벽돌을 쌓고 시간이 흘러가듯 벽돌을 차곡 차곡 쌓았지만 언제 벽돌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계획대로 될지 생각대로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채진숙



보송보송한 마음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은이 칠해진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변합니다.

물질과 관계하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고 물질을 통해 사물을 만들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인간 역시 물질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물질이
있어야 인간도 마음도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오래된 유물론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최수진



갓 태어난 아기예수에 대해 생각하며 만든 액자입니다

물질과 관계하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고 물질을 통해 사물을 만들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인간 역시 물질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물질이
있어야 인간도 마음도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오래된 유물론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최수진



새가 태어났을 동지를 떠올리며 만든 동지악자입니다

물질과 관계하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고 물질을 통해 사물을 만들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인간 역시 물질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물질이
있어야 인간도 마음도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오래된 유물론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최수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떠올리며 만든 액자입니다

물질과 관계하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고 물질을 통해 사물을 만들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인간 역시 물질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물질이
있어야 인간도 마음도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오래된 유물론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요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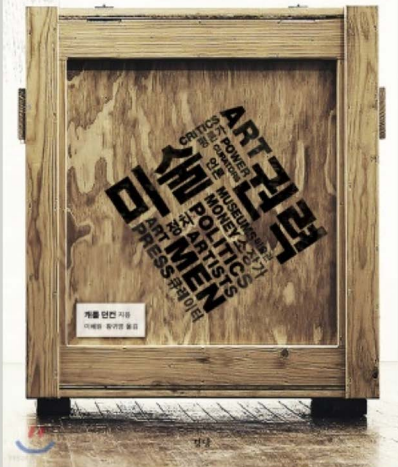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최수진

권력의 미학

18세기 회화부터 퍼포먼스 아트까지 미술로 본 사회, 정치, 여성

The Aesthetics of Power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황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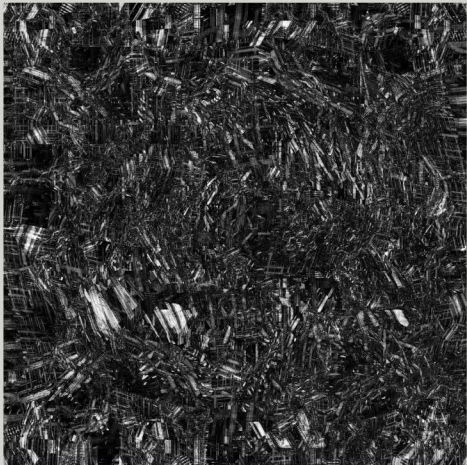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현대의 전쟁은 마치 영화나 게임처럼 스펙터클로 소비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전쟁을 안락하게 '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풍경은 미디어와 이미지가 과포화된 시대에, 안전한 자리에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우리까지 폭력과 파괴의 회로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방형의 씬입니다. 이 픽셀은 거울처럼 보는 사람을 비춥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황호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현대의 전쟁은 마치 영화나 게임처럼 스펙터클로 소비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전쟁을 안락하게 '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풍경은 미디어와 이미지가 과포화된 시대에, 안전한 자리에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우리까지 폭력과 파괴의 회로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방형의 '짬'입니다. 이 픽셀은 거울처럼 보는 사람을 비춥니다.

요기전

요즘미술
기획전 작가를 위한
기금마련전시

황호진